

신규항로개설 양해각서 체결

군산·베트남 하이퐁 간 동남아 직항로 개설... 물동량 증가 기대

군산시는 26일 군산시청 4층 면담실에서 군산~베트남 하이퐁 간 신규항로 개설을 위해 선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강임준 군산시장,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 최창석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천경해운(주) 서성훈 대표이사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베트남 하이퐁 신규항로개설 양해각서 체결식

동항로를 개설하는 천경해운(주) 대표이사 서성훈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군산항에 기항했던 국내 중견 해운선사로 한?중 한?일 중?일 및 동남아를 중심으로 컨테이너 정기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규항로에 투입 예정인 선박은 1,000TEU(9,940톤)급 선박으로 오는 7월 중순 경 취항 예정이며 군산항 컨

테이너 전용부두(GCT)를 통해 전분당, 환봉, 합판 및 냉동식품 등 수출화물의 선적과 우드패킷, 페넬라, 알루미늄 및 케이블 등 수입화물을 하역할 예정이다.

동항로는 주 1회 군산항에 기항함으로써 연간 1.2만~1.5만TEU 물동량을 처리할 예정으로 도내 기업체의 물류

비 절감과 컨테이너화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GCT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임준 시장은 "어려운 시기에 통큰 결단을 내려주시는 천경해운(주) 서성훈 대표이사께 감사하다"며, "베트남 직항로는 군산항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어렵게 개설되는 만큼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와 시는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 화물유지 지원조례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제정하고 선사·화주·포워더 및 물류기업에 각종 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결실을 맺게 됐다. /군산=김관곤 기자



익산시의회의는 26일 의원연구단체가 주관하는 '익산시 기후변화 대응 정책방안 연구용역'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 탄소중립도시 정책 연구 나서

익산시의회의는 26일 의원연구단체가 주관하는 '익산시 기후변화 대응 정책방안 연구용역'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익산시의회 탄소중립도시연구회 오임선 의원(대표의원)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8명의 의원과 익산시 관계공무원,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환경정책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탄소중립'이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개념이다.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으로 국제사회는 전 지구적 탄소중립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할 후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따른 강력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익산시 탄소중립정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이행방안을 제안하고자 올초 탄소중립도시연구회를 결성하고 연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연구회의 이번 용역에서는 익산시의 지역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분야별 익산형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실현하기는 리빙랩 활용방안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서 용역사인 한국환경정책학회 최정석 대표는 탄소중립과 관련한 국내외 동향과 익산시의 기초현황을 보고하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명했다. /익산=이재춘기자

대규모 전국대회 '풍성' ... 익산시 스포츠메카 '우뚝'

아쿠아슬론 챔피언십 · 전국종별배드민턴선수권 · 종별육상경기 등 내달 집중 개최

익산시가 대규모 전국 대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스포츠 메카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는 종목별 전국 규모 스포츠 인프라를 토대로 공격적 스포츠 마케팅을 펼쳐 전국 대회를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끈다.

우선 이달부터 9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익산헬렌지 아쿠아슬론 챔피언십 시리즈대회를 개최한다.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약 1,000여 명의 전국 엘리트 철인3종 선수가 참가한다.

국내 최초 수영 사이클 마라톤 경기 기반 시설을 갖춘 '웅포 국제철인3종경기장'에서 아쿠아슬론(아쿠아수영+달리기)경기를 펼치게 된다.

2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익산실내체육관에 전국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가 진행된다.

800여명의 대학·일반부의 전국 엘리트 배드민턴 선수단이 익산시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어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가 도내 유일의 육상 1종 공인구장인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다음 달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개최된다.

남88종목, 여84종목 남/여 4종목으로 총 176종목 중·고·대학·일반부로 나누어 전국 3,000여명의 육상 엘리트 선수단이 모여 자웅을 가리게 된다.

또한 백제무왕기맥스FC 전국무타이선수권대회가 다음달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익산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한·일 국제전 및 2계급 타이틀매치로 총 600여명의 선수 및 관계자가 참가한다.

경기제급은 남16계급 여5계급 중등부(남·여) 8계급 초등부(남·여) 10계급으로 총 39계급으로 진행 유튜브채널 IB SPORTS에서 생중계 방송을 진행하며, 직접 경기를 관람할 수도 있다.

전국의 무타이팬호치 및 관계자들이 익산에 머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대회 기간 동안 경기장과 운영본부 등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여 참가자들의 안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익산=이재춘기자

익산시, 민·관·학·경 협력 학교폭력대책 강화

익산시가 민·관·학·경 등 지역사회와 협력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을 강화해나간다.

시는 26일 상황실에서 시의원, 익산경찰서, 익산교육지원청, 교원, 청소년전문가, 학부모 등 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익산시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해 기관 간 협조방안 등 청소년의 건강한 학교생활과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인전망 구축 현황 △청소년범죄 및 유희환경 감시단 활동 △청소년드림폴리스 △청소년경찰학교 △학교폭력 예방교육 체험부스 운영 등 기관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추진실적을 공유했다.

특히 이날 협의회에서는 학교폭력 문제가 개인적 특성, 가정, 사회, 문화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되고 있어 교육지원청과 학교교민의 영역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깊이 있게 공감했다.

이를 토대로 각 기관이 유기적인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 긴밀한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허전 부시장은 "학교폭력은 청소년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기관과 단체의 다양한 노력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 공설시장 내 청년몰 방문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광일)는 지난 23일, 제256회 군산시의회 제차 정례회 기간 중 김영일 의장과 함께 공설시장 내 청년몰을 방문해 입점업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었다.

특히 군산시니어클럽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청년몰 내에서 문을 연 '콩보리 식당'을 찾아 군산의 특산물인 흰찰쌀보리를 이용한 보리밥을 시식하고, 식당 운영자의 면담을 통해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의원들은 청년몰 내에 마련된 유튜브 스튜디오를 방문하여 라이브 방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 활용방안을 확인, 직접 라이브 방송도 체험했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이 보



기 좋았으며, 현장의 주민들과 입점업체 상인들의 진솔한 의견을 토대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청년몰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광일 위원장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는 지역의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여, 군산시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 한 삶을 위하여 다양한 의정활동을 이 어갈 것"이라 말했다. /군산=김관곤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새만금신항 정책포럼 학술대회 9월 개최

군산시가 군산항과 군산새만금신항의 항만기능 재정립을 위한 군산새만금신항 정책포럼과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시는 군산항만의 경쟁력 확보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군산새만금신항 정책포럼 및 학술대회를 오는 9월 개최하기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군산새만금신항 2개 선석이 오는 2026년 개항함에 따라 군산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군산새만금신항의 경제적 부가 가치 제고 방안 등을 제시해 군산이 서해안 중추적인 항만도시로 재도약하는 미중물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항만관련 학회, 업계, 해운항만 관계자 등을 초청해 군산항과 군산새만금신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검토하고 군산시 항만산업의 도약을 위한 전문가들의 지혜와 뜻을 모아 군산시의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군산=김관곤기자

익산시, 불용농약처리 친환경농업 실천

익산시가 농촌 환경오염의 주범인 방치된 불용농약을 수거해 친환경 농업을 실천한다.

시는 27일부터 29일까지 마을이나 농가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 또는 보관중인 불용농약을 본격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집중 수습의 날'을 운영한다.

시는 농가에서 쓰지않은 농약 내용물이 새어 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이를 수습해 지정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그동안 영농폐비닐, 농약병 등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보상금 제도를 통해 수거했으나 쓰지않은 각종 불용농약은 방치돼 농촌환경 오염은 물론, 안전사고 등 추가 피해로 이어져왔다.

이에 시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약 3톤, 2022년 약 2톤의 불용농약을 직접 수거해 처리해왔다. /익산=이재춘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